

# ‘100m 한국新’ 김국영 은퇴…국가대표 코치로 뛴다

한국 육상 간판스타 김국영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표 지도자로 2막을 연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청 소속으

로 대회를 뛴 김국영은 지난 12일 대한육상연

맹이 발표한 국가대표팀 대표코치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그는 여자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의

성장을 돋겨 봤다.

김국영은 한국 남자 단거리의 살아있는 전

설이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0년 6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육상선

수권대회에서였다.

그는 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을 기록하며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 기록(10초34)

을 31년 만에 깨어ち웠다.

이어 같은 대회 준결승에서는 10초23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한국 단거리의 수준을 끌

어올렸다.

김국영의 짐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는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

회에서 10초16을 뛰며 신기록을 다시 깨어치

웠다.

2017년에는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

린 KBS배에서 10초13을, 이를 뒤 열린 코리아

오픈 100m 결선에서는 10초07으로 주파하며 개

인 통산 다섯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그가 작성한 10초07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대기록이다.

김국영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10초1의 벽을

돌파한 스프린터 역시 없다. 실제 한국 남자

100m 역대 1~7위(10초

~10초16) 기록은 김

국영이 모두 보유하고 있

다.

국제무대에서의 활약

또한 눈에 띈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에서 남자 100m와 계주

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본선 무대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하여 한

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자리매김했다.

또 2023년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

자 400m 계주에서 이정대, 이재성, 고승환과

함께 38초74의 기록을 합작하며 동메달을 따

냈다.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메달은 37년 만이

실상 은퇴 절차를 밟

았다. 이전 메달은 성낙균, 장재근, 김종일, 심

덕섭이 이어 달린 1986년 서울 대회다.

이후 국내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간 김국영

은 올해 9월 마지막 무대를 금빛으로 장식했

다.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역대 1~7위(10초

~10초16) 기록은 김

국영이 모두 보유하고 있

다.

국제무대에서의 활약

또한 눈에 띈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에서 남자 100m와 계주

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본선 무대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하여 한

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자리매김했다.

또 2023년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

자 400m 계주에서 이정대, 이재성, 고승환과

함께 38초74의 기록을 합작하며 동메달을 따

냈다.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메달은 37년 만이

실상 은퇴 절차를 밟



있다.

이렇듯 화려한 커리어를 작성한 김국영 또 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다.

한국 육상 단거리의 숙원인 ‘9초대 진입’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9초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스프린터로서의 여정을 마치고 지도자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

김국영은 올해 대한체육회 선수 위원장직을 소화하며 선수들의

쳐우개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육상 여자

단거리 대표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선수가 아닌 후배

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소화하게 된다.

한국 육상의 성장을 주도

했던 김국영이 국가대표 단

거리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

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

## 광주FC 유소년재단, 지역 스포츠 활성화 꾀해

(주)명진택과 업무 협약 체결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 추진



광주FC 유소년재단이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주)명진택과 손을 맞잡았다.

유소년재단은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동일 유소년재단 이사장과 정도성 명진택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 내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소년재단은 지역 내 운수·광고 선도 기업인 명진택을 공식 스폰서로 지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온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축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택은 유소년재단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사가 운영·관리하는 10개 버스 노선의 외부 측면 광고를 제공한다. 일상 생활권 내 버스 광고는 시민 접점을 높이는 효과적인 홍보 매체로, 유

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성 명진택 전무는 “지역 대표 구단과의 협력으로 유소년 축구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축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광주 축구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시체육회 무등팀, 야구인들에게 감사패 받아

야구소프트볼인의 밤서 수상…대통령배 대회 지원 등 유공

광주시체육회 무등팀이 올해 체육시설물 관리와 야구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 등의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는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무등팀은 15일 오후 6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2025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를에서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다.

무등팀은 무등야구장 전반을 관리하는 시체육회 시설부서로, 한 해 동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왔다. 지난 8월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는 선수들이 폭염 속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더아웃에 클링포그 시스템 설치와 그라운드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또 무등팀은 그동안 관람석 의사 설치, 내야 그라운드 인조잔디 개선, 안전펜스 및 안전 그물망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시민과 선수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전습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무등야구장을 비롯해 월드컵경기장, 국제양궁장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무등팀 노고에 힘입어 중앙종목단체의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축하하



광주시체육회 무등팀이 올해 체육시설물 관리와 야구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 등의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는다.

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주가 야구 메카도시인 만큼 많은 대회가 유치·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도장애인체육회-구례, 전남장애인체전 준비 본격화

경기장 실사·개최 계획 등 대회 추진 방향 논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4월 22일부터 24일 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대회는 21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전남 22개 시·군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화합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구례군청 전남체전TF팀과 협력해 대회 일정 확정, 상장물 및 구호 승인 등 주요 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회식과 성화행사를 총괄할 전문 대행사를 선정했으며, 구례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개행사 연출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임진출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경기 단체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며 “22개 시·군 장애인을 대표하는 스포츠 축제를 넘어, 구례군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하고 감동적인 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월드컵 입장권 판매…한국 조별리그 보려면 최소 86만원



개인당 경기별 4장까지 신청  
전체 토너먼트 40장까지 가능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세 경기를 관람하려면 최소 585달러(약 86만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FIFA는 12일(한국시간) 새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 구매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당 경기별 최대 4장, 전체 토너먼트를 통틀어 어 최대 40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